

2021 IP 라이선싱 빌드업(테마파크형) 선정평가 종합의견

○ 2021 IP 라이선싱 빌드업(테마파크형) 선정평가 종합의견

- 7.1(목) 에버랜드 부문

본 빌드업 선정평가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이에 부합되는 역량있는 IP를 선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빌드업의 취지와 부합이 되나 브랜드의 상품성이 높고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IP는 다소 부족해 보였습니다.

또한, 지원사업에 의존하는 경향보다는 자체 독립성을 지닌 역량있는 업체를 선별하도록 하였습니다.

IP의 창의성과 상품성이 우수한 업체의 정성적인 면과 정량적인 면을 감안하여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지원업체의 캐릭터 소개나 스토리 보다는 에버랜드와의 협업방안이 다소 모호하거나 발표량이 부족해서 아쉬웠습니다.

- 7.2(금) 롯데월드 부문

GOODS 파트는 더 우수한 IP가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브랜드성이 다소 약하고 본 빌드업 사업지원과 부합되는 부분이 특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우와 우쏘 모두 우수한 업체이나 본 제안에 특화되어있고 특히 롯데월드 측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우쏘를 정말 어렵게 선정하였습니다.